

지역 소식통

정읍시 정보보호 퀴즈대회

정읍시는 제9회 정보보호의 날(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을 맞아 지난 8일 '정보보호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4차 산업혁명과 지능 정보화시대에 대비해 직원들의 정보보호 중요성 인식과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퀴즈대회로 진행된 대회는 시 소속 산하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퀴즈 내용은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교육 내용 중 업무 추진 시 알아야 할 필수 상식에 대한 내용으로 총 10개 문항을 출제했다.

시는 퀴즈대회 만점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전달해 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였다. 또한 퀴즈대회와 더불어 직원들이 꼭 지켜야 할 정보보호 실천수칙이 담긴 화면보호기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농기계 임대사업소 불용 농기계 매각 추진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사용하던 불용 농기계를 관내 농업인에게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매각하는 농기계는 사용 내구연수가 경과했거나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트랙터 등 총 46종 99대이다. 매각은 지역 내 농업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는 18일까지 부안군 홈페이지에 공고글을 하고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부안군 상서면 내변산로 1840-5에 매각대상 불용물품을 전시할 계획이며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3시까지 입찰에 응해야 한다.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은 21일 오후 4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구입자적은 공고일 이전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농지원부상 세대주인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상 경영주인 농업인이며 입찰서 제출 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동일 물건에 대해 복수의 구매희망자가 있을 경우 최고가액을 제시한 농업인에게 낙찰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오픈

정읍시, 경운기 등 총 52종 159대 보유... 농가경영비 절감 기대

정읍시가 지역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편의를 위해 건립한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9일 오후 2시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준공식을 열고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 임대사업 시작을 알렸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농업인 단체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준공을 축하하고 임대사업소의 성공을 기원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동부지역(용동, 칠보, 산내, 산외면)의 농가들은 인근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없어 농기계 임대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는 총사업비 16억원(국비 6억, 시비 10억)을 투입해 동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준공했다.

동부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부지면적 4,705㎡, 연면적 632㎡에 총 52종 159대의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임대 기종은 농가 수요가 많은 경운기와 굴삭기, 관리기 등 밭작물용 농기계와 팥속 작물 수확기와 승용에초기 등 새로운 장비도 갖춰 많은 농업인의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부권 지역의 5,300여 농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할 경우 영농시간 단축과 연간 13억원 가량의 경영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농업인들을 위해 운영되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인 만큼 농기계 수요 조사를 통해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추가 구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동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준공을 통해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농

가들의 농가경영비 절감과 노동력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동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포함해 정우면과 신태인 소성면 등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전 기종을 50% 인하된 가격으로 임대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와 관련한 사항은 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539-6285)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9일 동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준공식을 열고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 임대사업 시작을 알렸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진섭 시장, 도·시의원, 농업인 단체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고창군 · 교육지원청 · 지역환경교육센터 '손잡다'

체험 중심 환경교육 기회제공

'한반도 생태환경 수도' 고창군이 교육청, 지역환경교육기관과 손잡고 생물다양성을 지켜가는 국민 교육에 울려퍼지기로 했다.

9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8일) 오후 군수실에서 고창교육지원청, 고창지역 환경교육센터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고창교육지원청과 지역 환경교육센터는 각종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에 접목해 아이들에게 보다 실천적인 환경교육과 체험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고창군은 교육청과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이어주며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게 된다. 현재 지역환경교육센터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풀공예학교, 곤충

생태학교, 미디어학교, 지질생태학교, 토우학교 등 동영상 기반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점차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을 통해 자신이 살고있는 터전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스스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신규 · 계속사업 국가예산 확보 총력

부안군이 2021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일제 대응기간을 정하고 전·관·과·소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실제 군은 지난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021년 국가예산 확보 일제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전·관·과·소에서 신규 중점관리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은 이 기간 동안 유선통화, 이메일, 중앙부처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벌여 지역발전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특히 권익현 부안군수 역시 이달 중에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동향농민혁명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 시민 혁명의 전당 건립사업과 직소천 캠퍼리 영의 파정활동장 조성사업,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부처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군은 또 코로나19 등으로 중앙부처 출입 제한 등에 따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업설명 방법을 모색해 국가예산 확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의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유기상 고창군수가 9일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활동과 다중이용시설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부탁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종교활동 · 다중시설이용 자제"

유기상 고창군수, 긴급담화

유기상 고창군수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차원에서 대면 접촉 없이 서면으로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종교활동과 다중이용시설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부탁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유 군수는 담화를 통해 "최근 고창군에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고, 인접한 광주·전남 지역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고창군은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며, 각 읍·면 경로당과 공공알자리사업,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로부터의 유입 위험도 커지고 있어, 지금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더욱 고삐를 죄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고, 국민들에게 ▲주말 종교 관련 활동 자제 ▲실내 체육시설·노래연습장·피시(PC방)·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손 씻기·마스크 쓰기 등 개인 위생 수칙 엄수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들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만 내 옆의 이웃을 서로 보듬으면서 함께 힘을 합치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군은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모든 정보는 신속·정확·투명하게 공유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담화에는 "앞으로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모든 정보는 신속·정확·투명하게 공유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축산악취 없는 쾌적한 정읍 함께 추진"

정읍시, 언론인 정례브리핑

정읍시가 9일 2020년 7월 첫 번째 언론인 대상 정례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은 입장 전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7월 첫 번째 브리핑에는 이완욱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나서 센터 관할 5개 과의 주요 현안 추진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소장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읍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해주는 언론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정읍 농업에 글로벌 산업으로 도약의 날개를 달

고 축산악취 없는 쾌적한 정읍을 위해 센터 소관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과 소통하며 함께 추진해 가겠다"며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 ▲기분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농업정책과)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농수산유통과) ▲축산악취 저감 대책 추진(축산과) ▲청년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기술지원과) ▲스마트 과학영농 기반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자원개발과) 등을 설명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